

김이탁 제1차관, AI 시티 구현 방향 논의

- 10일 전문가 간담회 참석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K-AI 시티 실행방안 구체화

-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0일(화) 오후 서울 AI허브에서 열린 ‘제1회 국토교통 AI 릴레이 간담회’를 주재해 교통·주거 등 삶의 공간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시티의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.
-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·정책·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고, 혁신에 관한 논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기획된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,
 - ‘AI 시대를 맞이하여,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’을 주제로 스마트도시 건축학회, 건축공간연구원, 국토연구원, 서울 AI허브센터 등 도시·AI 분야 전문가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티 관련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국내 적용 방향성을 공유했다.
- 이 날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AI 시티의 구체적 구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첫 번째 발제에서 김도년 스마트도시 건축학회 회장은 AI 기술 경쟁의 핵심은 도시 공간에서의 실증과 확산 역량에 있으며, 국가나 도시 단위가 아닌 동네(하이퍼로컬)*가 피지컬 AI가 작동하는 최소 단위라고 제시했다. 아울러,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와 디지털 수용성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전략적 기회가 있음을 강조했다.
 - * 동네(하이퍼로컬)는 도보 15분 생활권 내 보행과 교통, 주차, 에너지, 건물 운영, 안전, 돌봄 등이 통합 운용되는 최소 생활 및 서비스 단위이자 정책 사업의 단위
 - 두 번째 발제에서 국토연구원은 도시인공지능(Urban AI)을 중심으로 도시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의사결정하는 AI 시티 개념을 제시하고,

거주하며 실증하는 AI 시범도시 조성, 핵심 인프라 구축,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계적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.

- 발제 이후에는 국민이 AI 시티 조성을 통한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구체화 전략과 K-AI시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간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.
- 김 차관은 “지난 3월 6일 시행한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AI 시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강조하며,
 - “AI 기술이 국토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,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 <공동>	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태경 (044-201-3258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욱 (044-201-3264)
<공동>	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연희 (044-201-4845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빈 (044-201-4847)